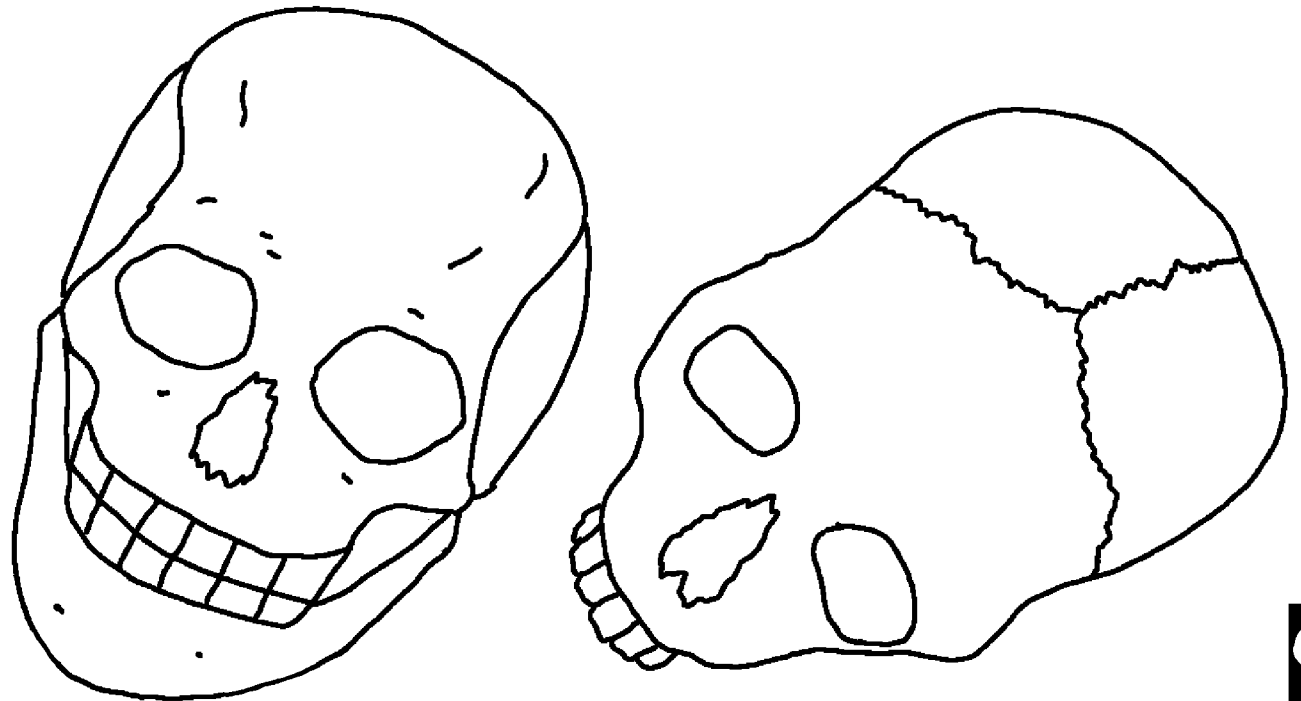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에스겔, 환상을 본 선지자



저자: Edward Hughes

삽화: Lazarus
Alastair Paterson

각색: Ruth Klassen

번역: Jessica Jiyeon Ju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4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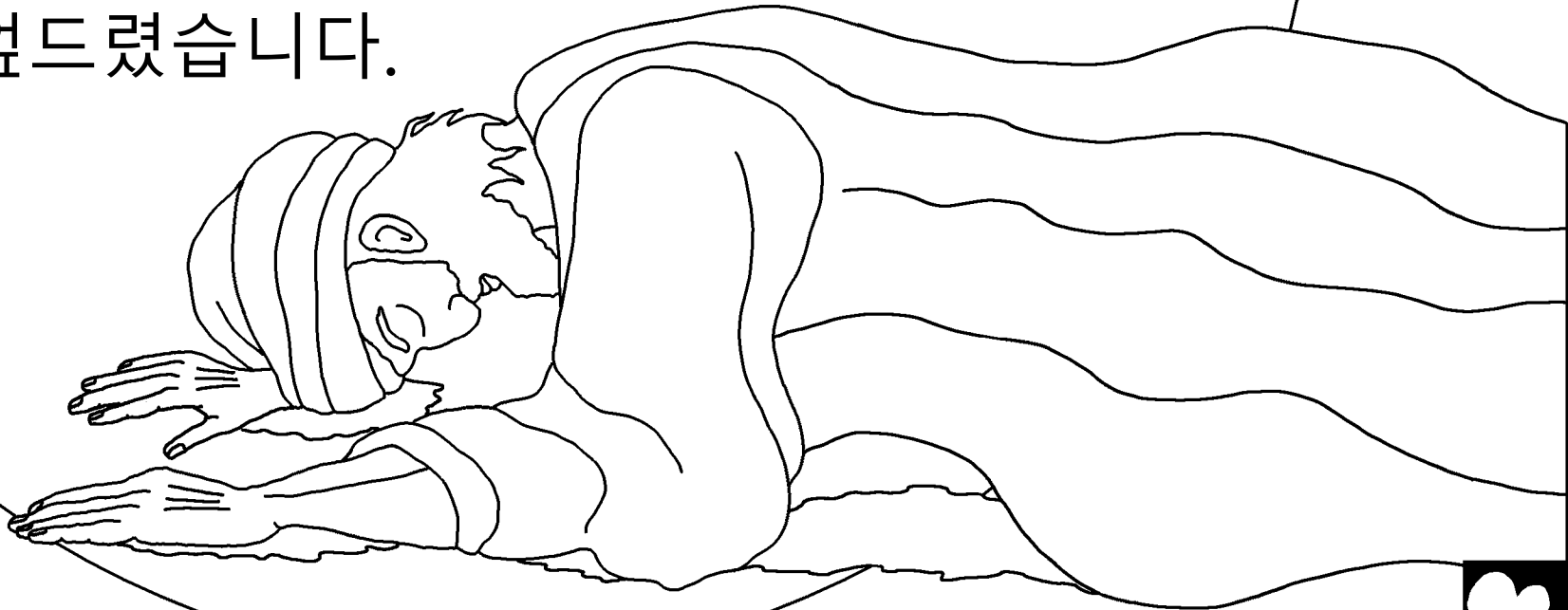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오래 전, 강력한 군대가 유다를 침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빌론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온 유대인들은 그발 강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밝은 빛과 같이, 네 마리의 불꽃 같은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생물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쪽에는 아주 아름다운 사파이어 보좌가 있었는데, 타오르는 무지개와 같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나에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두루마리를 든 손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라.”



얼마나
이상한
명령인가요!

하지만 에스겔은 순종했고,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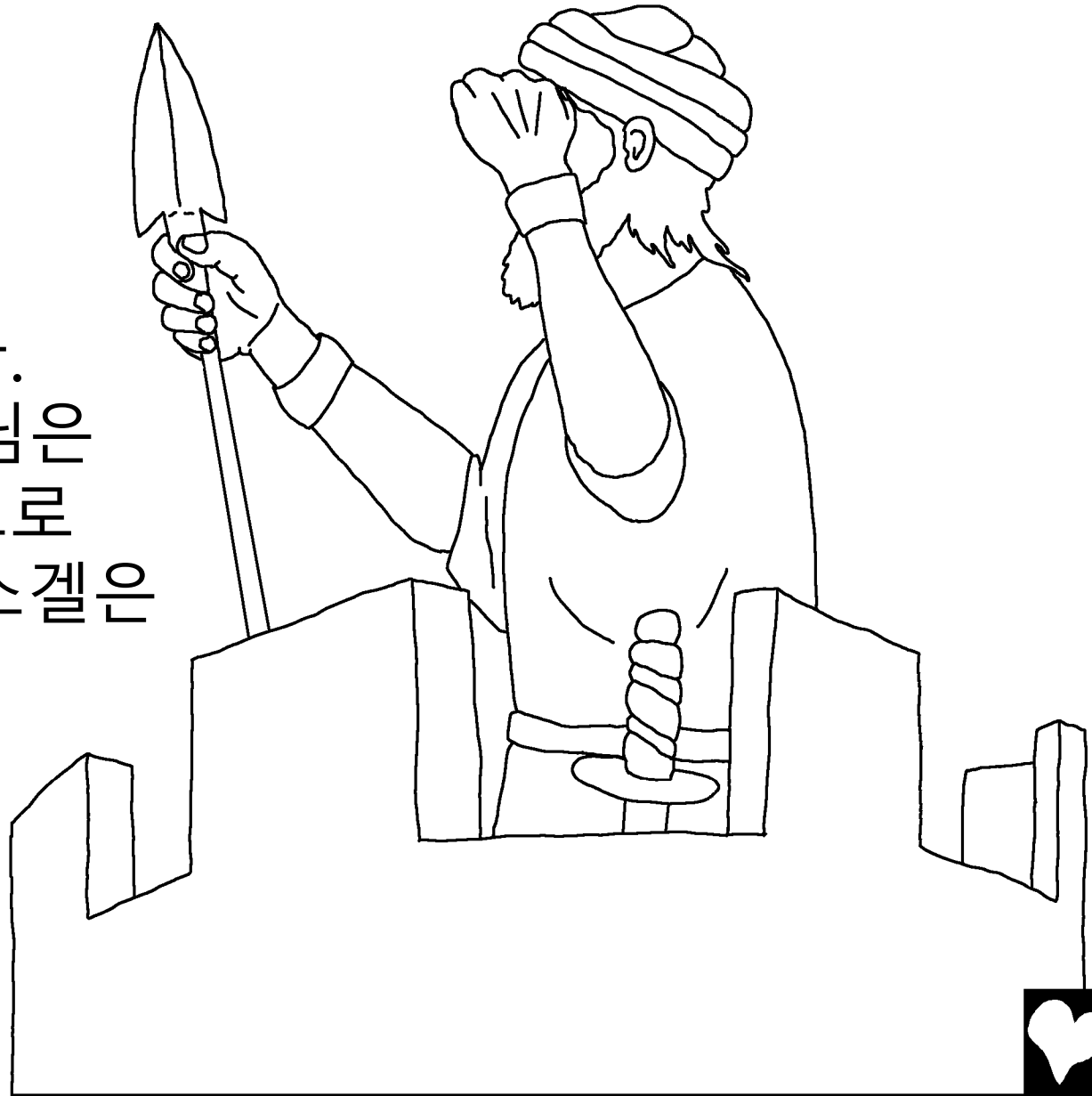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올려 그발 강가의 한 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포로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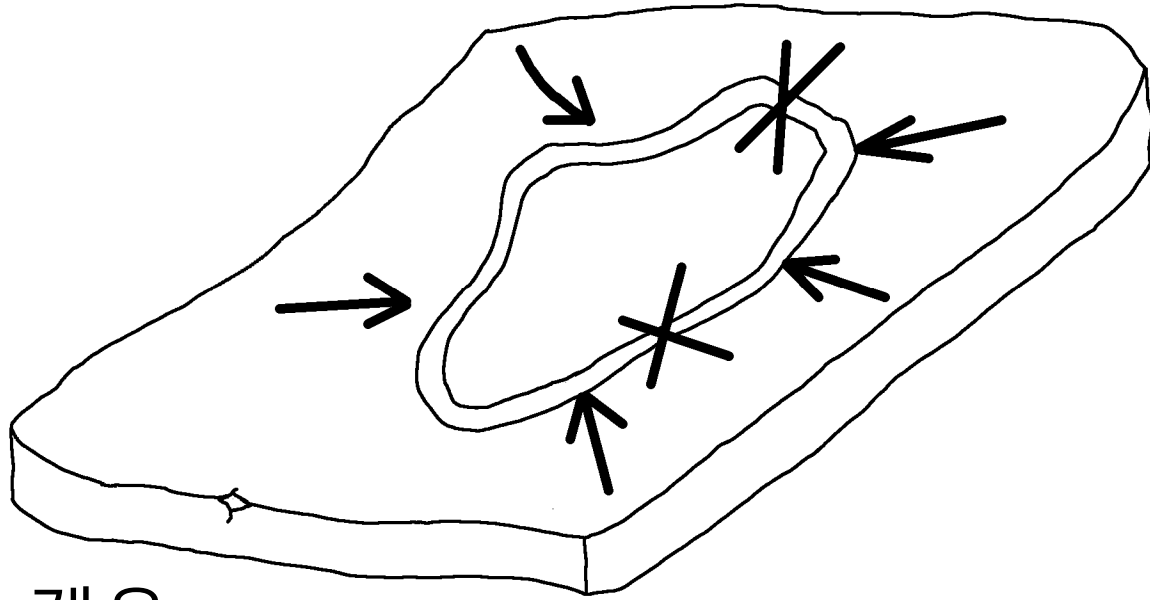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본 것에 놀라워하며, 일곱 날 동안 그들 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겔은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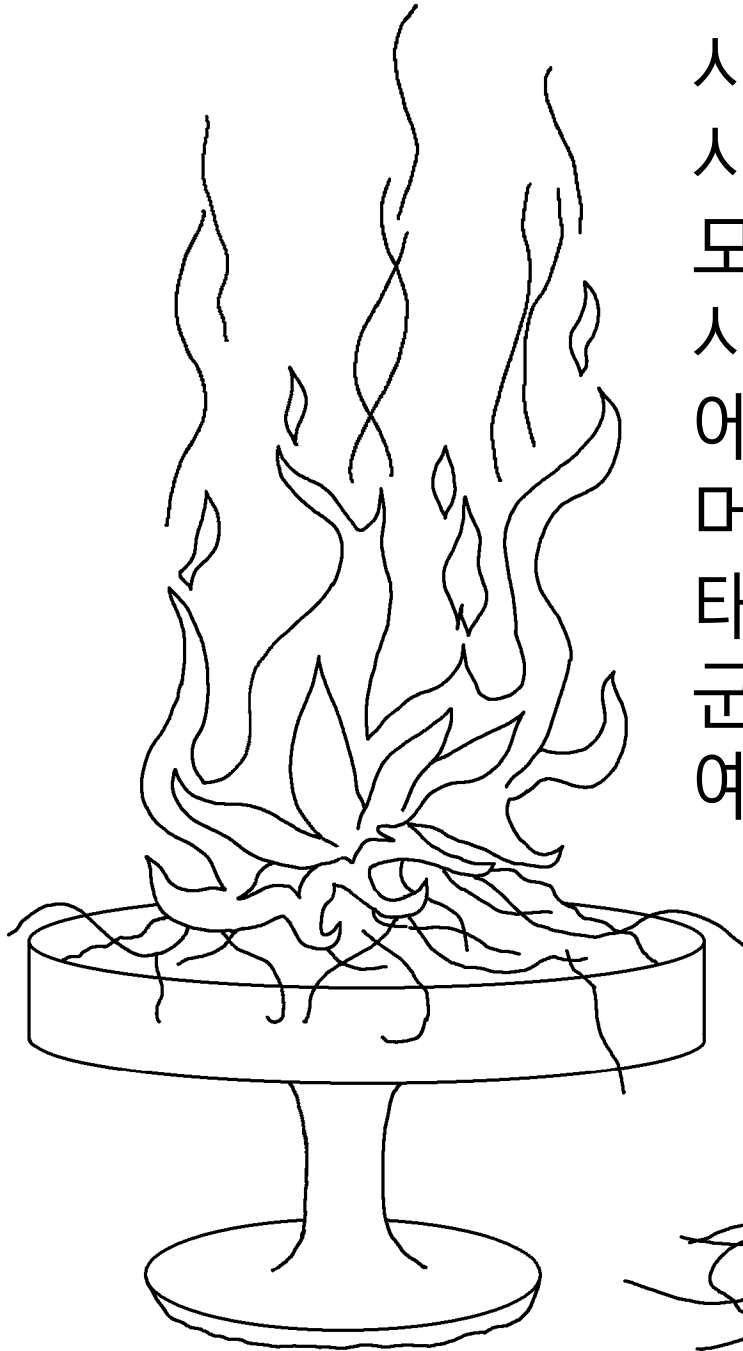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 많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진흙판 조각에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의 어깨 너머로 힐끔거리며 그가 그리는 것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주위를 강한 적군이 둘러싸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곧 파괴될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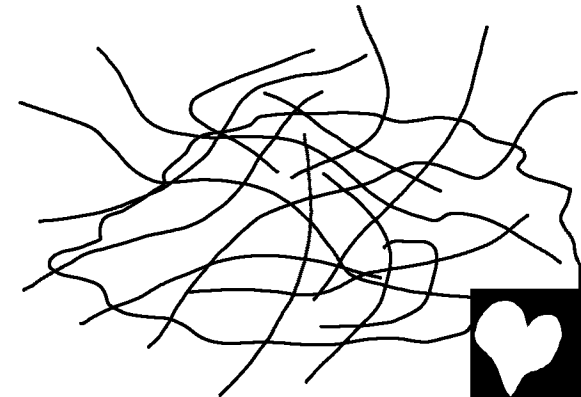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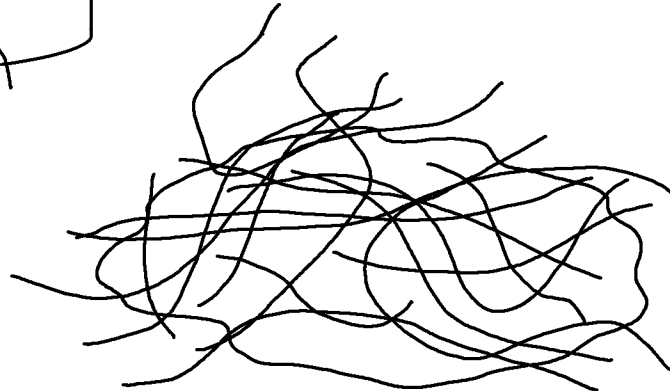
북쪽에 있는 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390년 동안
불순종했고, 남쪽의 왕국 유다는 40년 동안 불순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파괴되었고, 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 그 다음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한 기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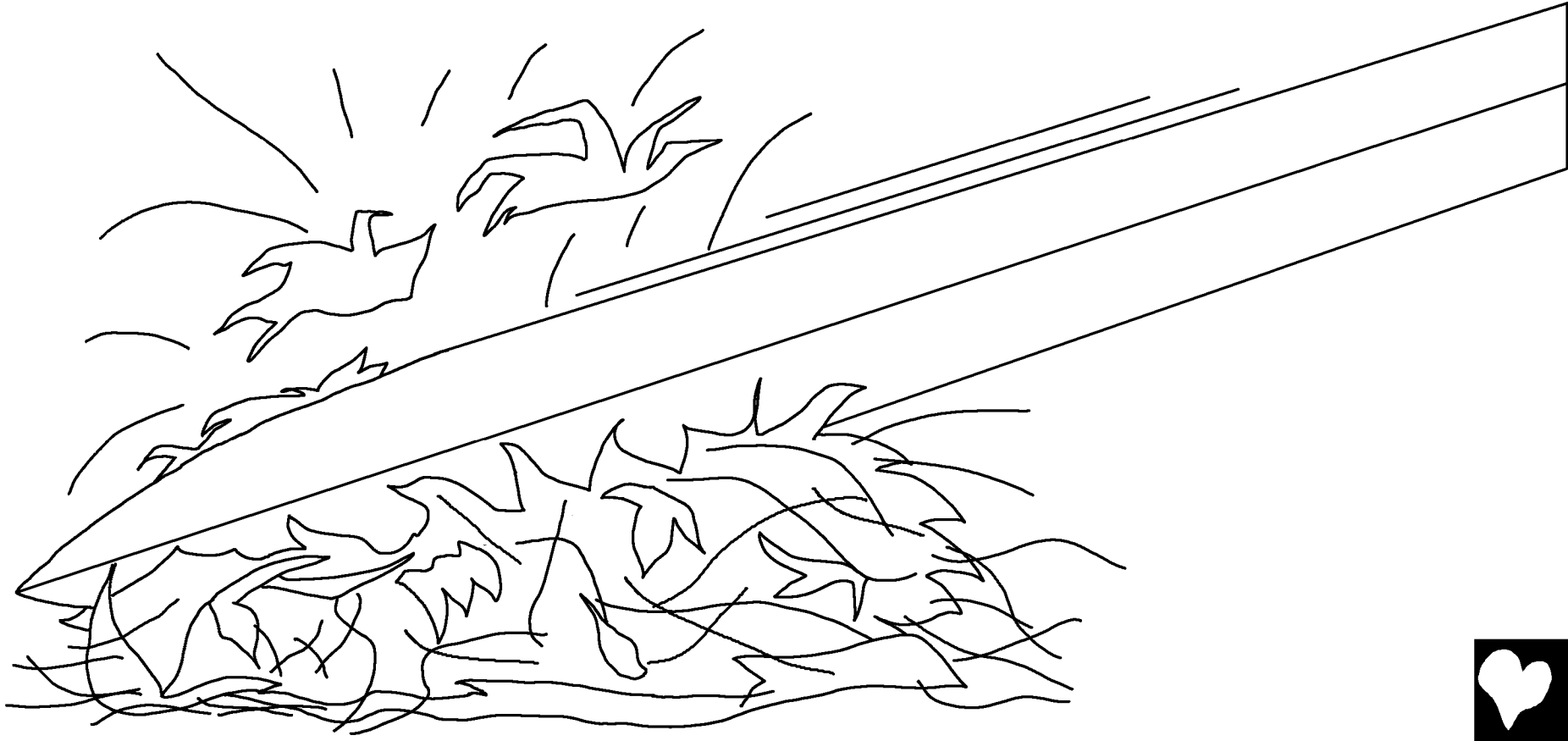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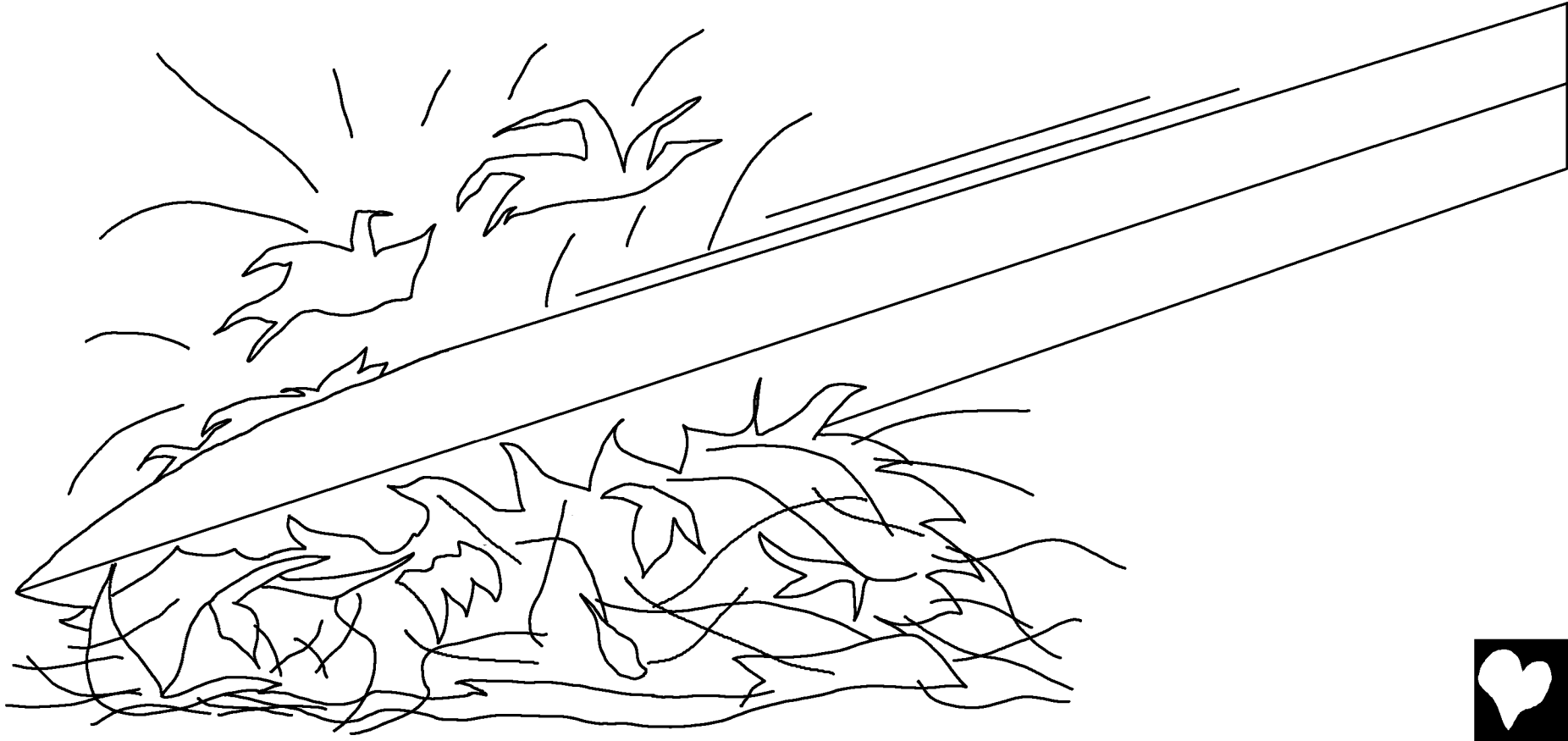
사람들은 점점 에스겔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자신의 머리를 밀고 자른 머리카락 중 삼분의 일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 중 삼분의 일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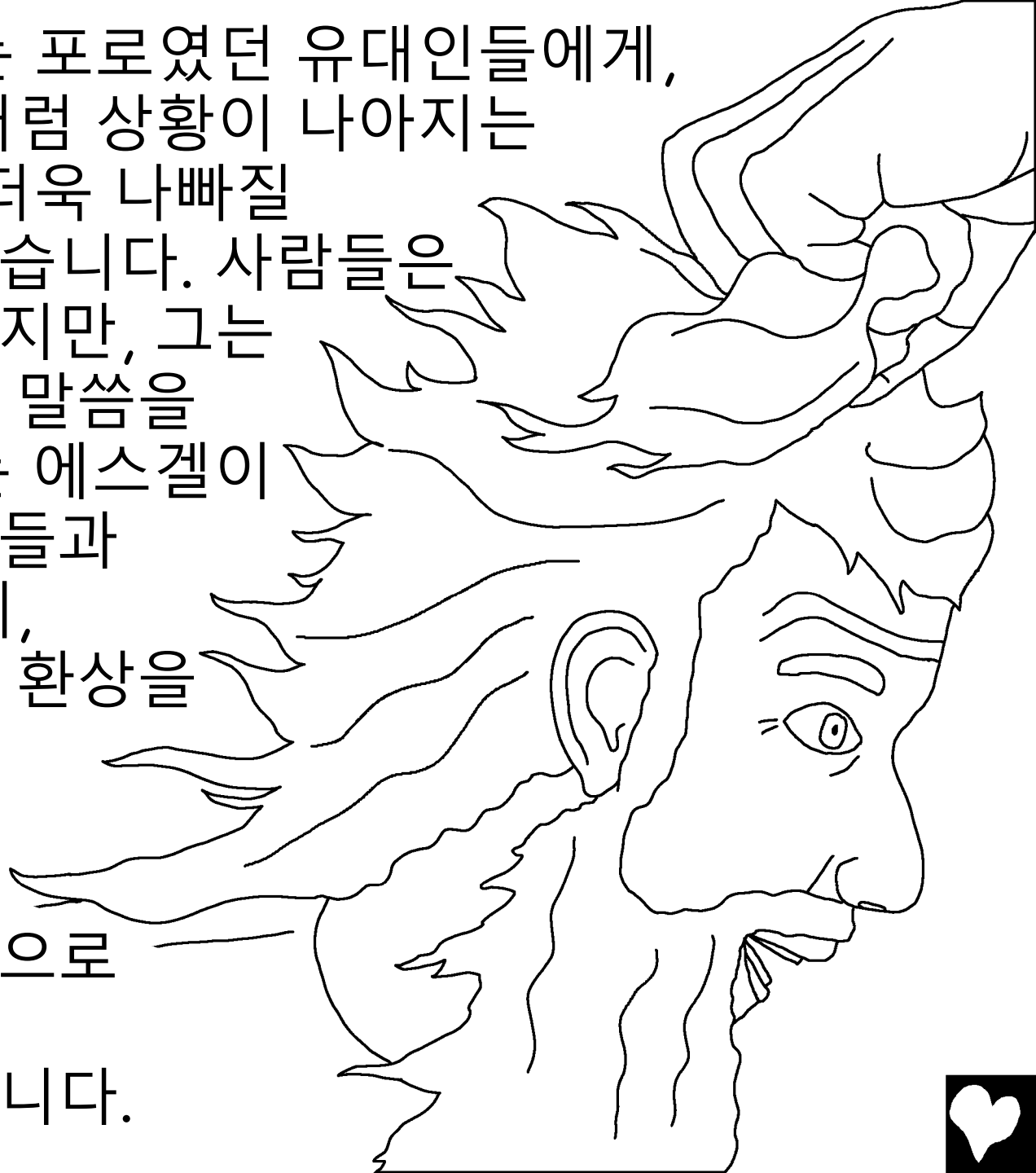
또 에스겔은 자른 머리카락 중 삼분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칼로 잘게 잘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
중 삼분의 일이 적군의 칼에 죽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남은 삼분의
일을 바람에 흩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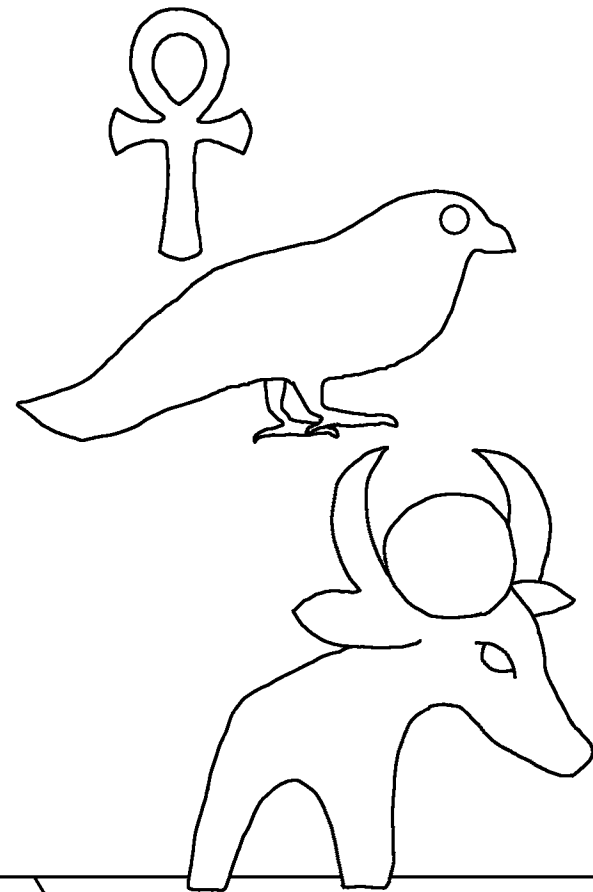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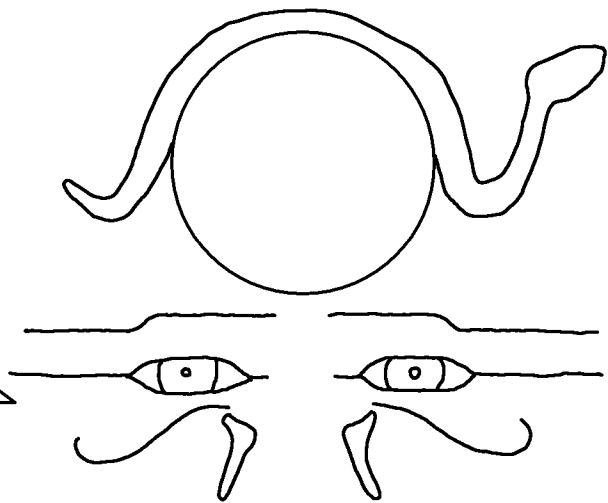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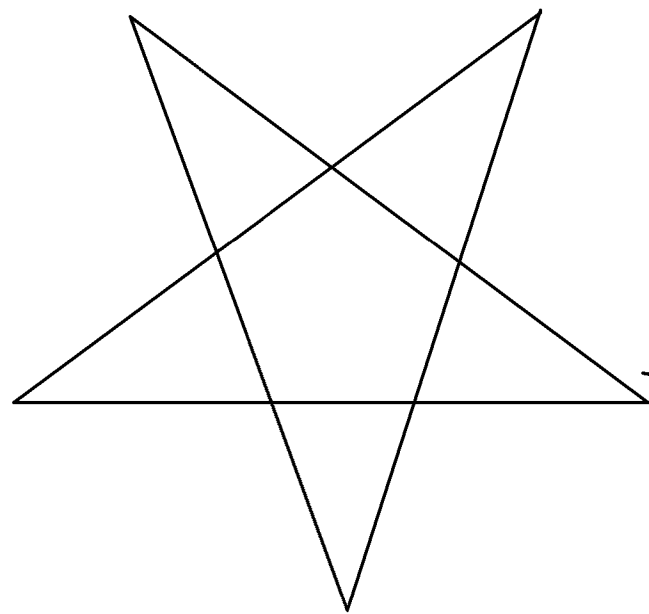
하지만 그 중 몇 가닥의 머리카락은 자신의 옷 자락에 꿰매어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사람 중 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선지자는 포로였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분노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머리카락으로
들어올려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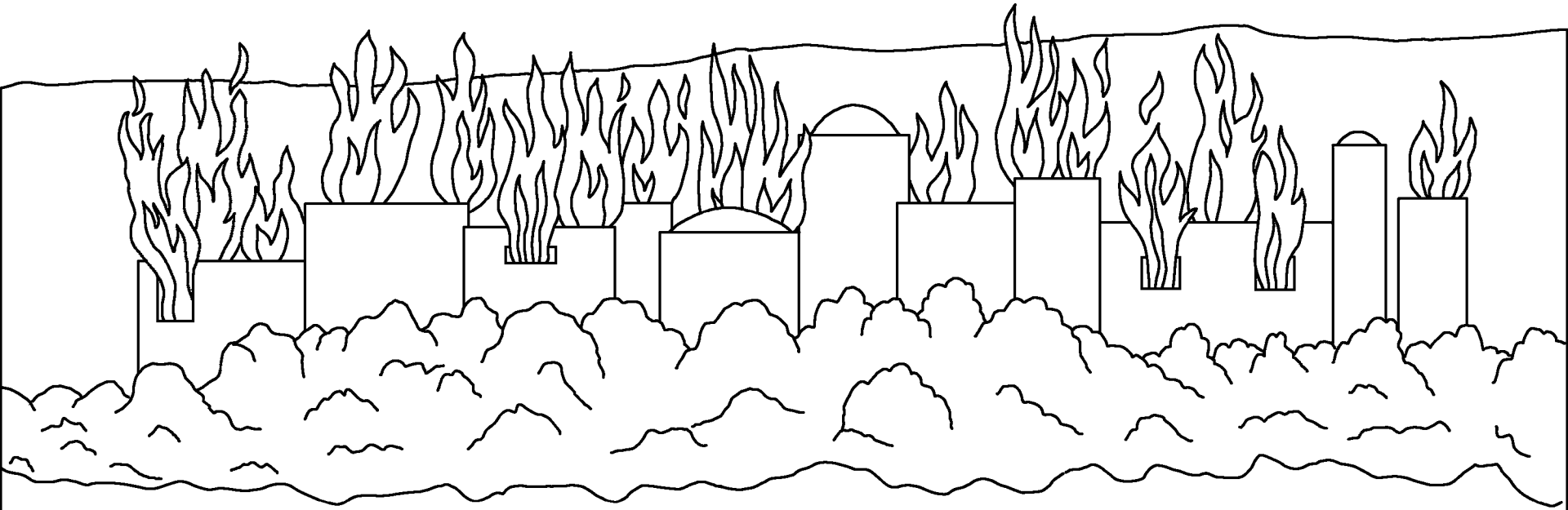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부정한 동물들과 우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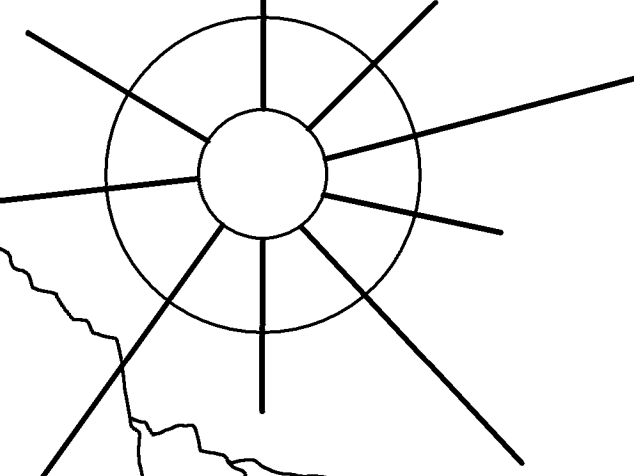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환상이 끝나자, 에스겔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민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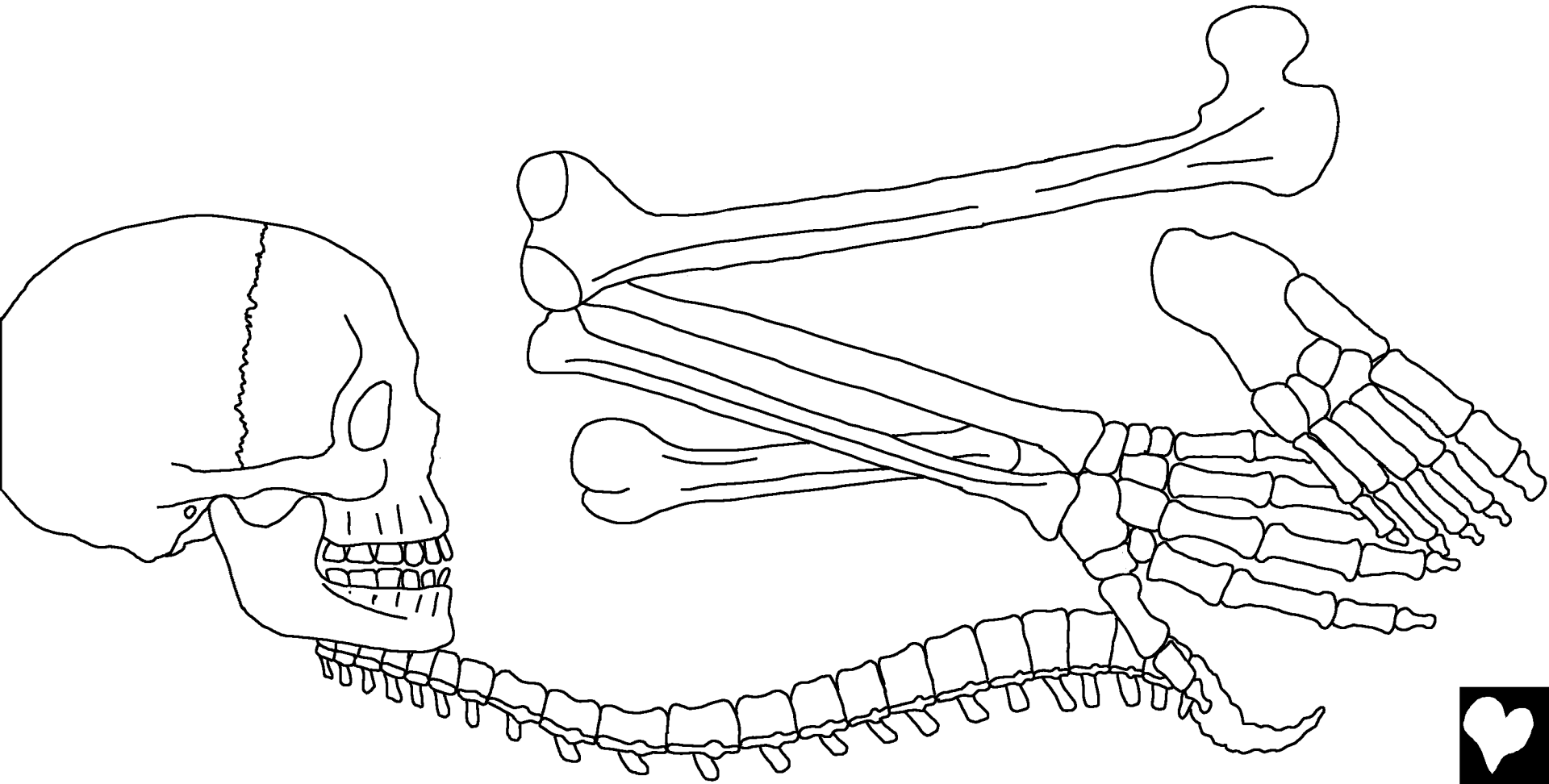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에게
또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골짜기는
사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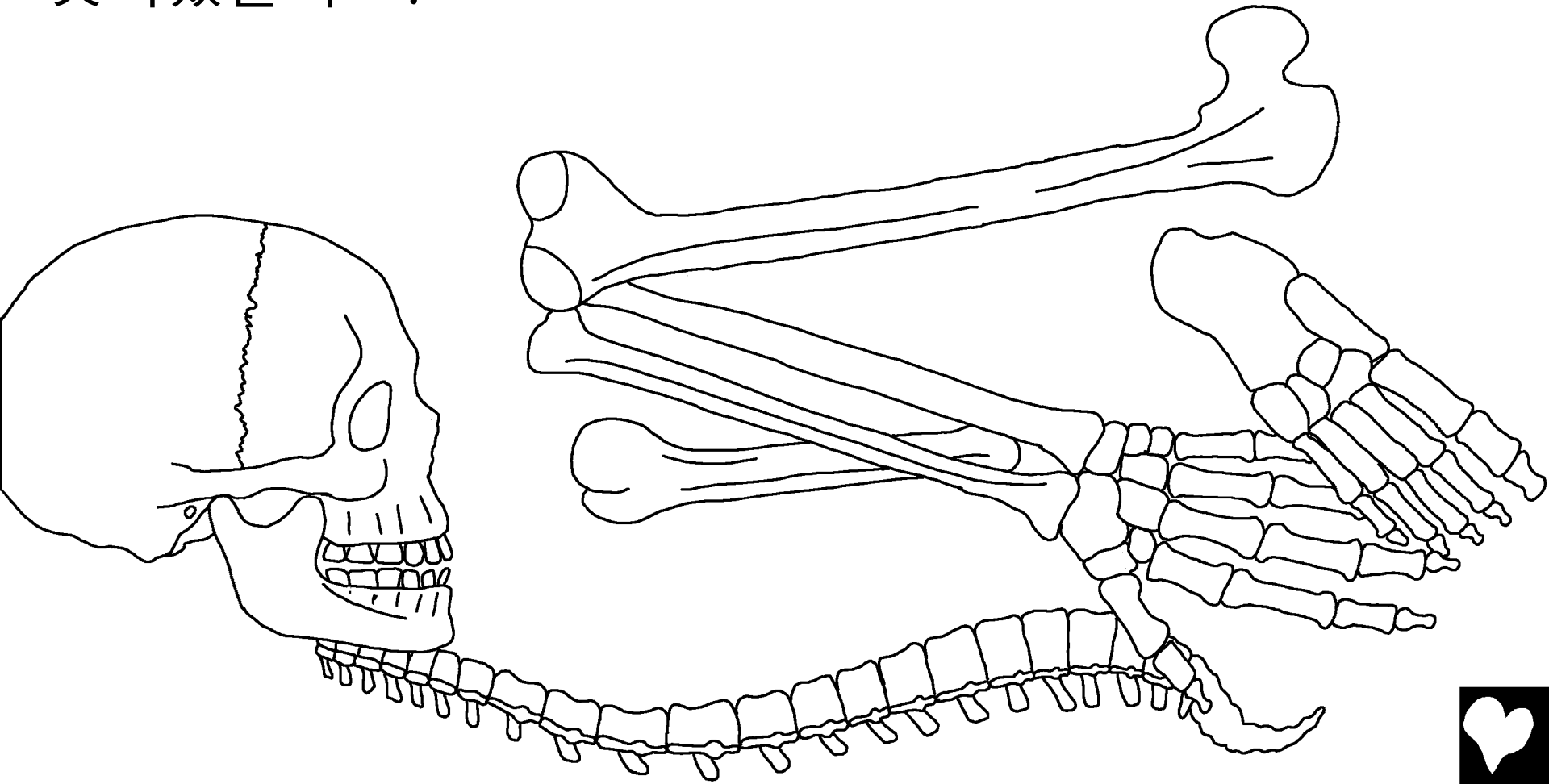
뼈로 가득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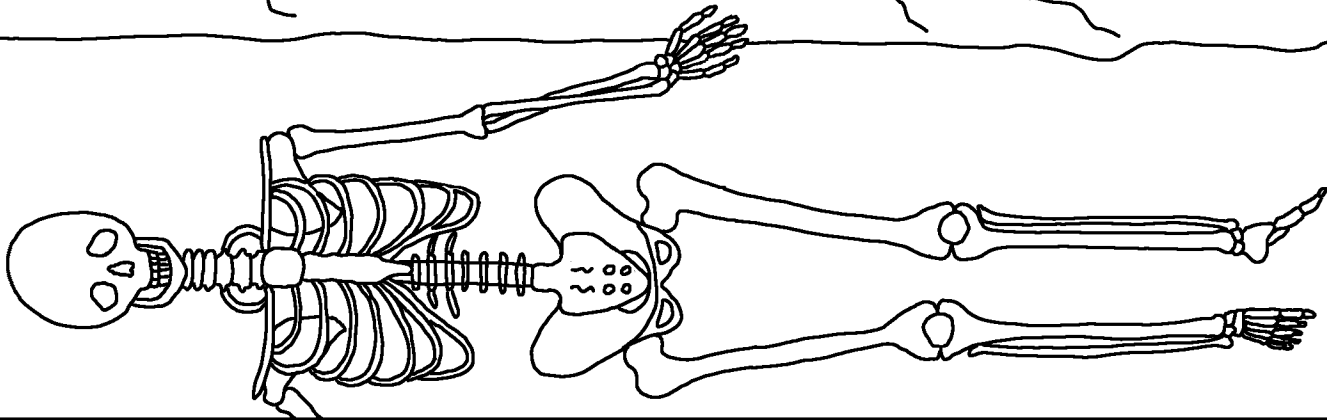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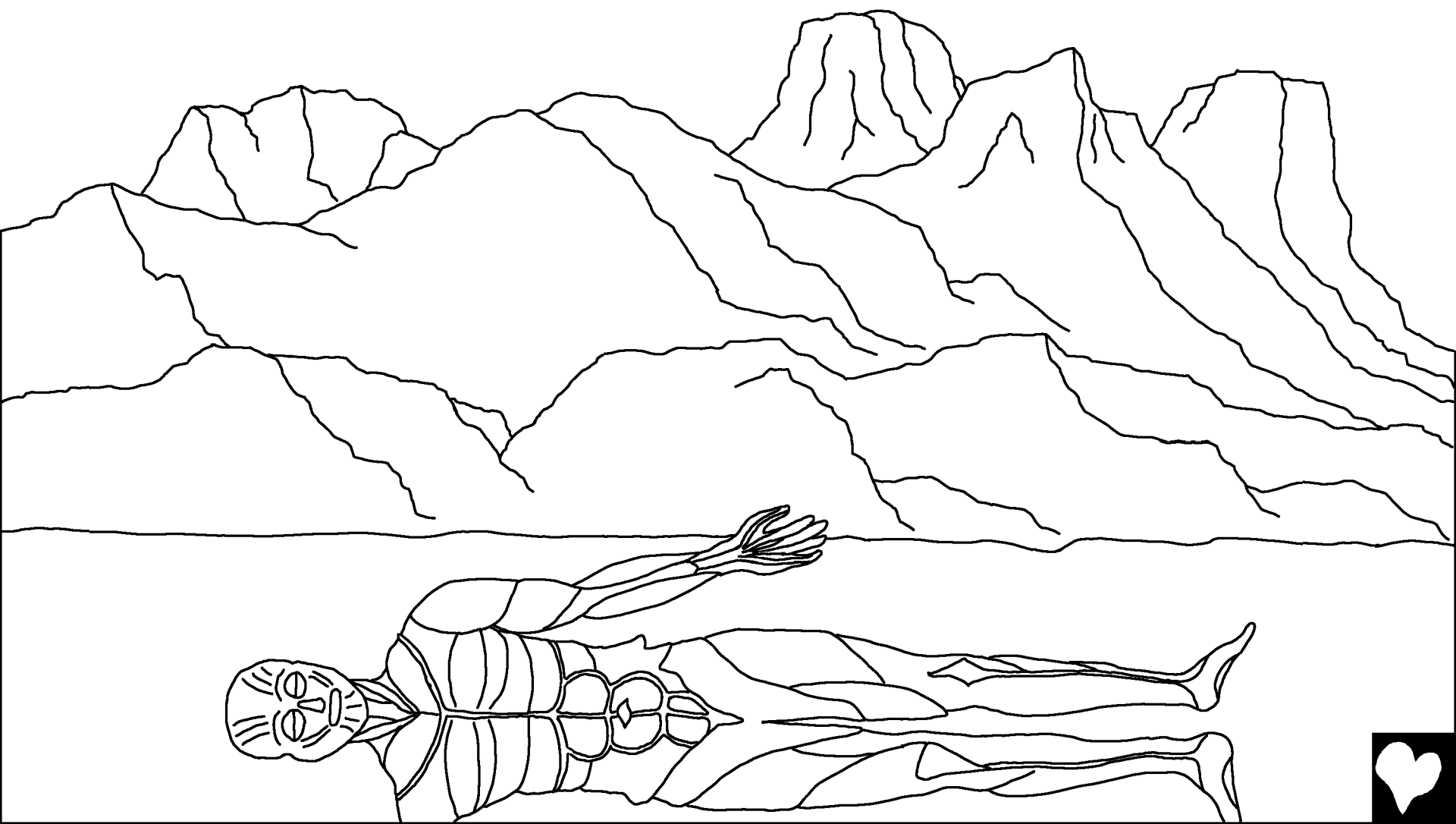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예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순종하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가 난 것이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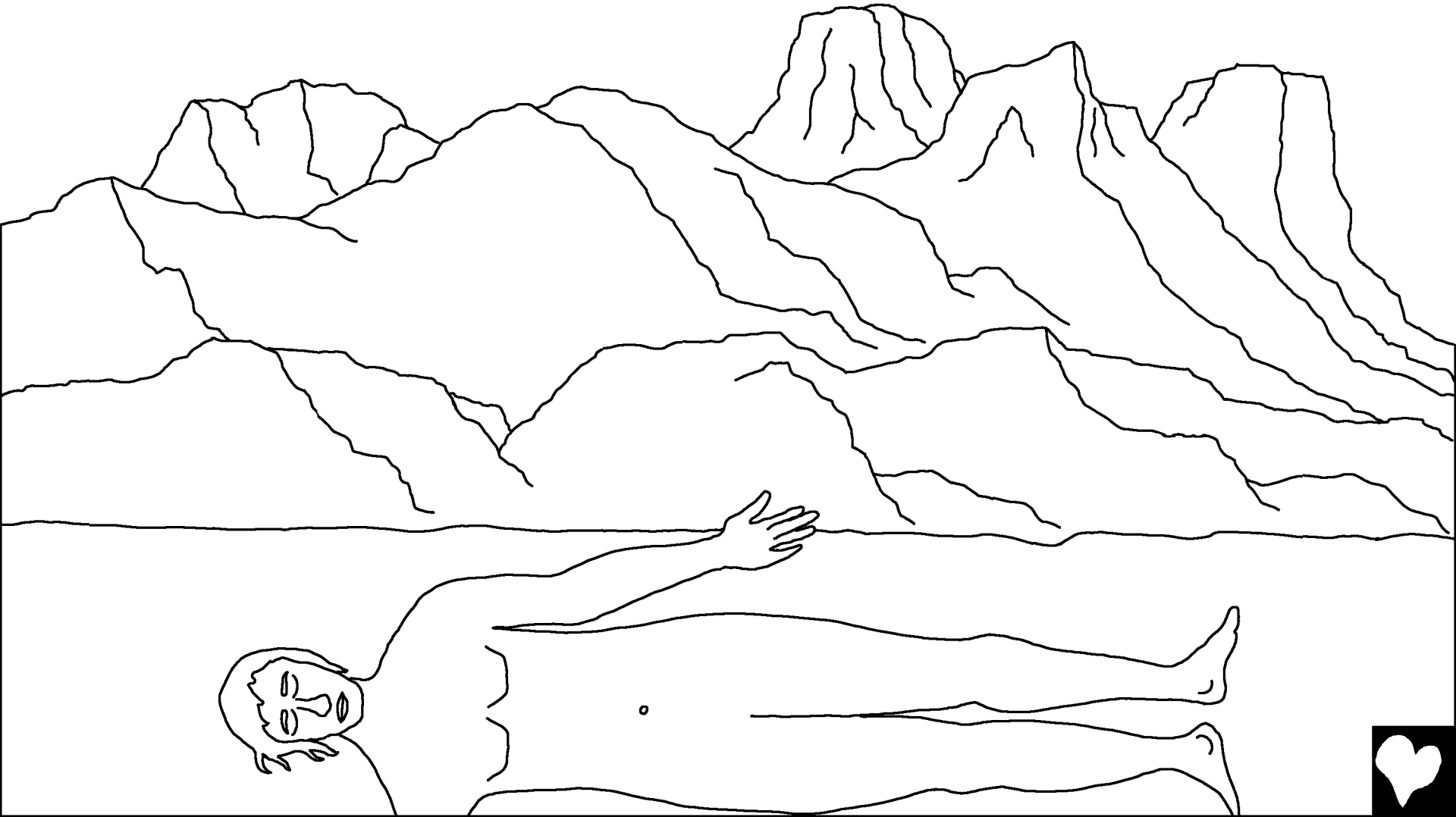
선지자 에스겔이 놀란 채 보고 있는 동안, 뼈가
이어지며 몸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살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피부가 덮였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예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몸에 들어가 살게 해라.'" 에스겔이 그렇게 하자, 몸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골짜기는 이제 큰 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바빌론의 유대인들이 절망에 빠졌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비전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넣고, 너희의 본토에 정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약속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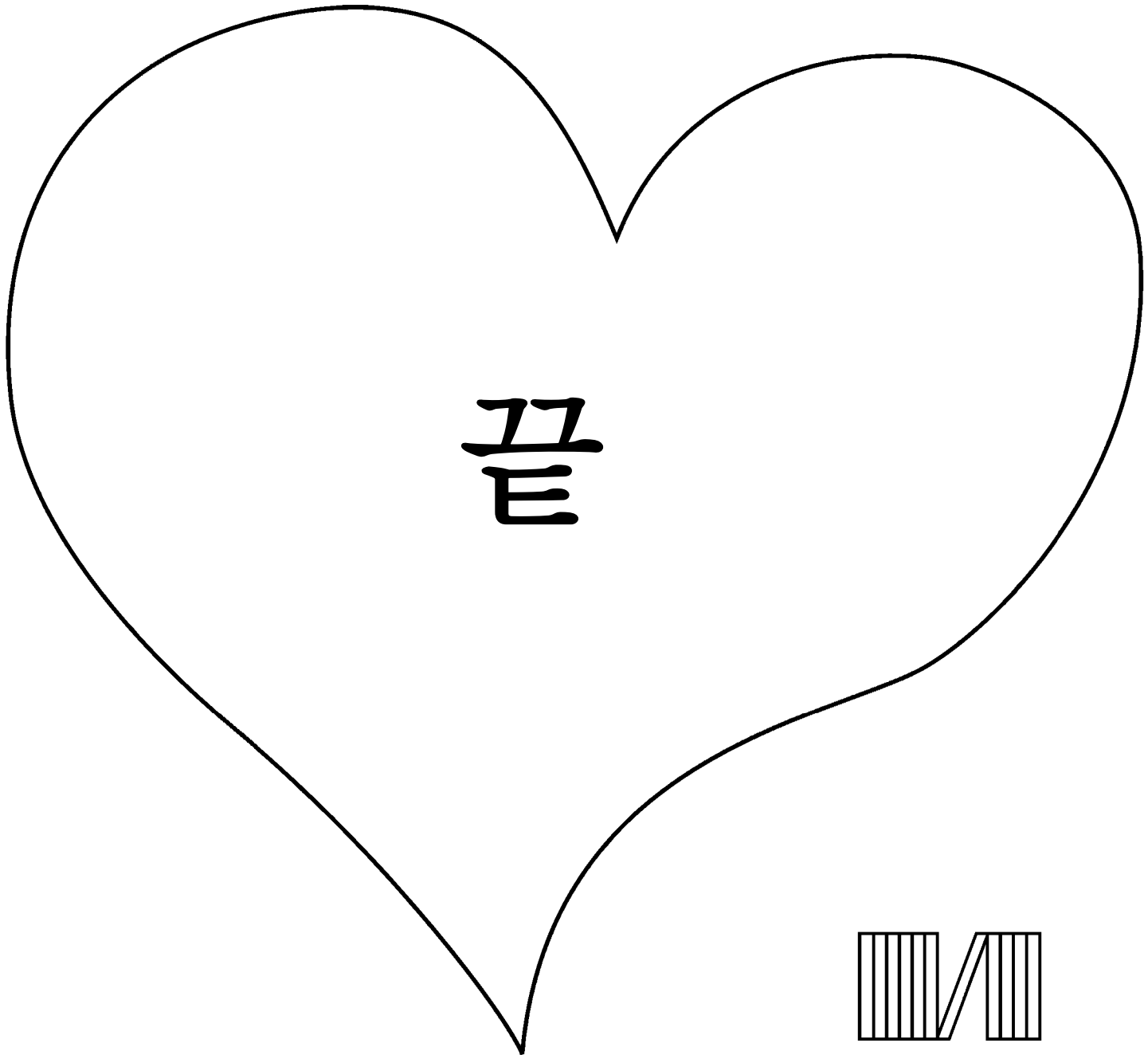
에스겔, 환상을 본 선지자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